


이 18장 '수회공덕품'의 내용은 장명(章名)에 나타나는 것처럼 '수회(隨喜)'의 공덕을 설한 것이다. '수회'라는 말은 범어 아누모다(ānumodana)의 한역인데 본래 뜻은 '마음에서부터 기꺼이 공감한다', 즉 '기꺼이 자신을 대상에 투입시킨다' '자진해서 귀의한다'고 하는 의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의 16장 '여래수랑품'을 듣고 마음속으로부터 기뻐하며 그 가르침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뜻이다. 중국의 천태지자 대사는 <법화문구>에서 '수회'의 '수(隨)'를 '이사(理事)에 수순(隨順)한다'라고 했고, 자은 대사 기(基)는 <법화론>에서 '심신(心身)에 순종(順從)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수'란 범어의 접두사 아누(anu)를 번역한 것으로, 원어인 아누모다나에는 '...에 따라서(隨)'라고 하는 뜻은 없으므로 따라 기뻐한다'고 번역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원전인 법본 <법화경> 17장의 장명인 '마음속에서부터 귀의함으로써 받는 복덕에 관한 해설'을 봐도 '따라 기뻐한다'는 말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회'라는 것은 이 18장에서 처음 설해진 것이 아니라 앞의 17장에서 이미 설하고 있다. 즉 16장 '여래수랑품'의 설법을 들은 공덕을 앞의 17장에서는 '4신5품(四信五品)'으로 간추렸는데 그 가운데 '5품'의 첫 번째인 '초수회(初隨喜)'가 바로 그것이다.

있다는 것이 종래의 해석이다. 이 '수회공덕품'에서는 '초수회'의 공덕을 다시 강조하고 자세히 설하고 있다. 왜 이와 같이 되풀이하여 설했는가 하면 가르침에 대해 마음속에서부터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감격이, 신앙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근본 요소이기 때문이다.

양 대상×신앙하는 마음=신앙의 결과'이다. 이 식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앙의 대상이 위 없이 완전한 것이었다고 하자.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심이 불타오르지 않고 타오르는 정도가 낮다고 한다면 커다란 결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시로 100이라는 수치로 나타낸

오한 신앙의 대상이 허무한 것이라면 이것 또한 무가치한 것이다. 즉 0×100=0인 것이다. 허무한 것을 제 아무리 열심히 신앙한다 할지라도 허무한 결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잘못된 가르침을 신앙하면 그 결과가 해악(害惡)이나 불행으로서 나타날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즉 신앙의 대상 그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1 정도의 사교(敎)라도 그것을 신앙하는 마음이 100이라면 -1×100=-100, 이러한 엄청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다. 사교를 맹신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는 이것으로도 알 수 있게 된다. <법화경>의 가르침은 물론 한없이 큰 것이지만 입시로 그것을 100이라는 수로 나타내기로 하자. 가령 그저 잠깐 동안의 한 생각(一念)이라도 '아! 감사하다' 하고 마음속으로 깊이 믿는다면 그 한 생각을 입시로 1로 나타내더라도 100×1=100이라고 하는 커다란 결과로 된다. '초수회'라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인데 하물며 신앙심이 2가 되고 5가 되고 10이 되고 100이 됨에 따라 그 결과는 차츰 증대하여 드디어는 무한대로 퍼져가게 될 것이다. 더욱이 '초수회'는 문자 그대로 '부처님께서 멀도한 후 5품'의 최초의 단계이므로 그 최초의 것에 대한 공덕의 크기를 설하면 다음의 두 번째 내지 다섯 번째의 공덕의 크기에 말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18장의 첫머리에 마득보살이 부처님께 '세존께서 멀도하신 후에 이 가르침을 듣고 수회하는 사람의 복덕은 얼마나 됩니까?' 하고 질문한다. 이 질문에 답해서 설하신 것이 다음의 '50전전(五十展轉) 수회공덕'이다.

해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㉔ 수회공덕품 제18
수회의 공덕



수회는 "부처님 가르침에 깊이 감사" 신앙 대상에 자신 던지는 것이 믿음

'아! 감사하다'라고 하는 감격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천만 권의 경전을 읽고, 온갖 교리를 외우고 있더라도 그것은 불교화에 통달하고 있을 따름이지 부처님을 믿는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수회의 마음이 있어야만 신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거듭 설한 것이다. 흔히 신앙을 곱셈에 비유하기도 한다. 즉 '신

다'고 하자. 그런데 그 가르침에 대한 신앙의 마음이 0.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100×0.5=50이라는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재에도 존재하지만 그것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식의 결과가 된다. 즉 100×0=0인 것이다. 반대로 신앙심이 제 아무리 불타고 할지라도 가장 중

어떤 부류의 승려는, "부처는 구경의 경지이니 무수한 세월 동안 수행한 공덕이 가득해야 비로소 도를 이룬다"고 말한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그대들이 만약 부처가 구경의 경지라고 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부처는 80살에 쿠시나가라 성의 사라쌍수 사이에서 옆으로 누워 죽었는가? 부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부처의 생사는 나의 생사와 다르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대들은 또한, "32상 80종호가 부처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전통성왕도 부처여야 할 것이다. 32상 80종호는 다만 환상일 뿐임을 분명히 알아라. 옛 사람은 말하기를, "여래가 나타내는 몸의 모습은 세간의 인정에 따르기 위함이니, 사람들이 단견(斷見)을 낼까 염려하여 방편으로 헛된 이 몸을 세우고, 32상이나 80종호니 하는 말을 빌리지만 모두가 헛소리일 뿐이다. 몸이 있으면 깨달음의 본체가 아니고, 모습 없음이 곧 참 모습이다"라 하였다.



임제록 통한 선 공부 ㉔
모습 없음이 참 모습

래, 단견, 상견, 방편, 실법, 깨달음, 무명 등 수많은 말들이 마음공부하는 사람을 감싸고 있다. 이 말들은 제각각의 모습을 지니고서 서로 연결되고 연관되면서 거대한 미로와 같은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른바 마음공부하는 사람, 도 닦는 사

하여 오랜 세월 노력한 뒤에 어떤 그럴듯한 환상에 꼭 집착하고 머물러서는 만족해하며 자신이 한 경지를 이루었다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참으로 가엽고 안타까운 일이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이름과 모양으로는 여래를 볼 수 없다'고 하며, '법(法)은 본래

부처님 32상 80종호도 헛소리일 뿐...

람, 수행하는 사람, 참선하는 사람, 명상하는 사람이라고 일컫는 부류들의 다수가 이런 말들의 미로 속을 헤매고 다니며 어떤 때에는 절망하고 어떤 때에는 만족하며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있다. 밀교 생각이라는 허망한 환상을 실제(實)라고 여겨서 환상 속에서 온갖 경지(境地)와 단계를 차별하고 온갖 행위를 통하여 그러한 환상에 더욱더 견고하게 집착한다. 그리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닌데 이름으로만 법이니 법이 아니니 할 뿐이다'고 하며, '설명할 법이 없다'고 하며, '깨달아 얻을 법이 없다'고 하며, '머무름이 없어야 한다'고 하며, <반야심경>에서는 '생겨남도 없어짐도 없으며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으며 많아지거나 적어짐도 없다'고 하며, '얻을 것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분명한 말이 있는데도 우리는 이 말

을 올바르게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말들에 속아서 이런 지런 망상(妄想)을 내고 있다. 이름과 모양이 아니고, 법이 아니고, 설명할 것이 없고, 얻을 것이 없고, 생겨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할 때,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면 바로 어긋난다. 그것들은 모두 이름과 모양으로 생겨나거나 없어지며 설명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냥 막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가? 아무 것도 알 수 없단 말인가? 법은 이러한 온갖 생각과 말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온갖 생각이나 말들과 법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다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한 순간도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바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이름의 뜻에 구속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이 언제 법에서 벗어난 적이 있는가? 김태완 부산대 강사,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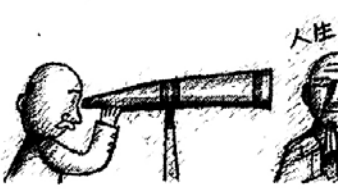
박영재 교수의
과학과 불교

인생은 긴 것인가, 짧은 것인가

올해 노벨물리학상은 1962년 처음으로 우주의 X선을 관찰하는데 성공한 미국의 지아코니 박사와 매우 관측하기 어려운 소립자의 하나인 중성미자를 관측하는 새로운 장치를 개발함으로써 온하게 내부를 정확히 관측할 수 있게 한 미국의 데이비스 2세와 일본의 고사바 교수에게 돌아갔다. 입자물리학의 연구대상인 소립자들의 경우 대개 평균수명이 매우 짧다. (마이크로중간자의 경우 정지해 있을 때 약 10의 -8초) 따라서 소립자를 좀더 오래 관찰하고자할 때 이를 가속시켜 평균수명을 늘려 그 입자의 특성(본성)을 알아낸다. 이때 이론적 근거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간

불명경(佛名經)에 일면불의 수명은 1800세(약 5.7곱하기 10의 10승)이고 월면불의 수명은 하루(약 8.6곱하기 10의 4승) 초로 환산하면 하루도 큰 숫자일라고 쓰여 있다. 일면 피상적으로 따져보면 마조스님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 긴 수명을 가진 '일면불'과 짧은 수명을 가진 '월면불' 두 분의 이름을 외쳤는데, 아마 마조스님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사람의 일생은 길다고 하면 긴 것이요 짧다고 하면 짧은 것으로, 또는 길거나 짧거나에 관계없이 일면불은 일면불로서, 월면불은 월면불로서 각각 매우 소중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상대성이론에 따라 살펴보면 일면불은 S좌표계에서, 월면불은 S'좌표계에서 관측하는 자로 두 사람 모두 S'좌표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관측하고 있다고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이런 견해들은 어디까지나 이해의 차원에 불과한 것이며 마조스님의 외침은 이해와 분별을 뛰어넘어 전 생애를 건체득의 차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인간의 철학삼 년 일생은 백오십의

늘림' 현상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단지 다른 좌표계에서 관찰함에 따라 본래 똑같은 입자의 수명은 매우 급격히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따라서 사실 좌표계들 사이의 상대운동에 무관한 입자의 수명의 길고 짧음은 견해의 차이인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되어 음미해볼 화두가 하나 있다. <박암록(樸巖錄)> 제3칙의 '마대사불안(馬大師不安)'이란 화두이다. 마조스님이 병이 깊어 세상을 떠나려고 할 무렵 어떤 절의 원주 스님이 문병하러 와서 "스님! 요즈음 병세가 어떠하십니까?"하고 물었다. 그러자 스님께서 "일면불(日面佛)! 월면불(月面佛)!"하고 대답했다. 서강대 물리학과 yipark@ccs.sogang.ac.kr



"자신을 이해하고 가족을 이해할 수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전문상담가 심화교육

후원 : 행정자치부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피해자 및 가해자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가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합회에서는 가정폭력 남편의 의식개혁을 위한 상담가 심화교육을 통하여 가해자의 심리치료적 접근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대 상: 가족폭력관련 상담가 및 사회복지사, 병원내 상담관련 종사자
◆일 시: 2002년 10월31일 ~ 11월 1일, 2일, 3일 (4회 20시간=기본과정:5만원)
2002년 11월 4일 ~ 11월 6일, 7일, 11일, 12일 (5회 25시간=심화과정:7만원)
◆장 소: 연꽃 교육장 (인사동사거리 상 갤러리 4층 401호) ◆인 원: 30명(선착순) 2002년 11월 4일
◆수강료: 12만원 (우리는행 : 098-088769-01-501/한국여성불교연합회)
◆문의: 02-738-5586, 5568 /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1.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이해		
11월 1일 (금)	10:00 ~ 12:00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과 실제
	13:00 ~ 16:00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이해
11월 3일 (일)	10:00 ~ 12:00	가정폭력에 대한 핵심적 기법
	14:00 ~ 16:00	가정폭력의 원인과 배경
11월 7일 (목)	10:00 ~ 12:00	가정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상담기법
	13:00 ~ 16:00	부부갈등과 외도
2. 가정 폭력의 가족 치료적 접근		
11월 6일 (수)	10:00 ~ 12:00	가족치료의 단기해결 중심적 접근
	13:00 ~ 14:00	해결 중심적 가족치료의 배경
	14:00 ~ 16:00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실제
3.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의 실제 I		
11월 11일 (월)	10:00 ~ 12:00	가정폭력 가해자의 심리치료 프로그램
4.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의 실제 II		
11월 11일 (월)	13:00 ~ 16:00	가정폭력 가해자 집단 프로그램
5. 가정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치료의 실제 III		
11월 12일 (화)	10:00 ~ 12:00	부부대화 프로그램
	13:00 ~ 14:00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대책
	14:00 ~ 16:00	건강한 가족제도

1 본 프로그램 이수자(심화과정)는 본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가해자 부분 12시간)을 면제함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중앙본부

우리국최대 크리아불다 KOREA BUDDHA

조각작품으로 인본 인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고분층림방장 서용 큰 스님 / 추천서

野外法壇 16羅漢像

